

China Strategy



민병규 Global Strategy
byungkyu.min@yuantakorea.com

중국도 해외여행 성수기

소비는 중국 경제의 이중성이 확인되는 대표적인 영역. 이구환신과 소비쿠폰을 활용한 그동안의 소비 부양책은 한계에 봉착. 교체 주기가 긴 내구재 품목에 혜택이 적용되어 수요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 이에 중국 정부는 소비 부양 타겟을 기존 상품 부문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이는 상품과 서비스 소비 경기의 극명한 차별화로 연결. 중국의 5월 상품 소매판매는 +1.4%로 추가 둔화, 반면 서비스 소매판매는 +5.4%로 견조한 추세 유지 중. 온라인 소매판매는 상품 +5.7%, 서비스 +189.4%로 격차가 대폭 확대.

그동안 중국의 소비 회복을 저해했던 부동산 경기는 저점 신뢰도가 높아지는 중. 1선 도시의 주거용 주택 거래 면적은 2025년 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 70대 도시의 주거용 주택 가격도 회복세가 확인.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 된 2022년 이후 급증했던 주택 매물 역시 점진적으로 소진 중. 중국의 인당 가처분소득 증감률은 25Q4 +4.4%에서 26Q1 +5.0%로 증가. 소득원별로는 투자수익이 +6.6% 증가하며 견인. 신국 9조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책이 부의 효과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 재원으로 전환 중.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소비심리는 추세적인 회복세, 가계예금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 코로나 19 이후 비자발적으로 고착화됐던 저축 기조가 종료되고 있음을 시사. 산업별로는 관광, 문화/엔터 영역에 대한 소비 지출 의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가계의 심리 변화는 2026년 연휴 기간 여행 실적으로 확인. 연초 위안단 이후 최근 단오절까지 중국의 내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 매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

중국의 겨울 방학은 춘절과 연계된 귀성 휴양이 중심. 반면 여름 방학(7월~8월) 기간은 전형적인 해외여행 성수기. 7/10일 China Trading Desk가 발표한 2026년 여름 성수기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최선호 도시는 서울. 제주도 역시 상위권에 랭크(서울,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주도 순). 짧은 비행시간, 친숙한 관광 인프라, 가족 친화적인 여행 상품, 가성비가 강점으로 지목. 기존 선호지였던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 수는 반일 감정이 지속되면서 여전한 감소세. 5월 기준 방일 중국인 관광객 수는 31.3만명으로, 코로나 19 당시를 제외하면 2015년 1월 이후 최저 수준. 2025년 12월부터는 방한 중국인 수가 방일 중국인 수를 역전.

중국의 해외여행 소비 트렌드는 명품 쇼핑에서 '로컬 문화 체험 및 미식'으로 변화 중. 그러나 최근의 상반된 환율 흐름(달러 및 원화 대비 위안화 강세)은 중국 관광객들의 상품 구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 중국의 면세점 구매 희망 품목은 Beauty products의 응답률이 62.1%로 1순위.

Key Charts

소비는 중국 경제의 이중성이 확인되는 대표적인 영역.

이구환신과 소비쿠폰을 활용한 그동안의 소비 부양책은 한계에 봉착. 교체 주기가 긴 내구재 품목에 혜택이 적용되어 수요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

이에 중국 정부는 소비 부양 타겟을 기존 상품 부문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이는 상품과 서비스 소비 경기의 극명한 차별화로 연결.

[그림 1] 중국 정부는 소비 부양 타겟을 기존 상품 부문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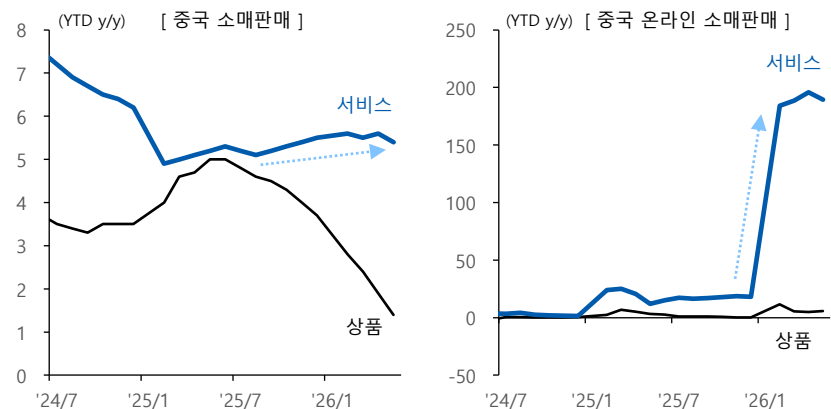
[중국 서비스 소비 활성화 정책]		
	정책명	내용
24.8 월	서비스 소비 활성화 조치	- 서비스 분야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 개 핵심 과제 제시 - 영화, 인터넷 문학, 공연, 게임 등 신산업 육성. 대출 지원 확대
25.1 월	문화/관광 소비 번영에 관한 조치	- 춘절 기간 문화,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한 쿠폰 발급, 할인 행사 - 어린이, 노인, 가족 맞춤형 관광 상품 확대
25.4 월	서비스 소비 활성화 계획	- 소득 증대, 휴가 활성화, 관광 진흥, 노인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 - 요식, 숙박, 헬스케어, 문화/엔터, 관광
25.5 월	서비스 소비, 양로 재대출	- 내수 촉진과 노인 돌봄을 위한 5 천억 위안 규모 재대출 신설
25.7 월	신소비 모델 육성 강조	-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융합 촉진 - 스마트 관광, 의료, 엔터 등 새로운 서비스 소비 모델 지원
26.4 월	여행 서비스 수출 및 Inbound 소비 확대	- 관광, 비즈니스, 스포츠 등 분야별 외국인 소비 편의성 개선
26.4 월	서비스 소비 업그레이드 행동계획	- 전통 서비스(요식, 숙박 등), 신성장 분야(온라인, 라이브 공연 등)의 서비스 소비 고도화 및 품질 제고
26.6 월	인공지능, 소비 발전 가속화 시행 의견	- 지능형 상품 소비, 서비스 소비 활성화 등 17 개 정책 제시 - 문화/관광, 돌봄, 숙박/외식 등 핵심 서비스에 AI 적용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 소비 경기는 극명한 차별화

중국의 5 월 상품 소매판매는 +1.4%로 추가 둔화, 반면 서비스 소매판매는 +5.4%로 견조한 추세 유지 중.

온라인 소매판매는 상품 +5.7%, 서비스 +189.4%로 격차가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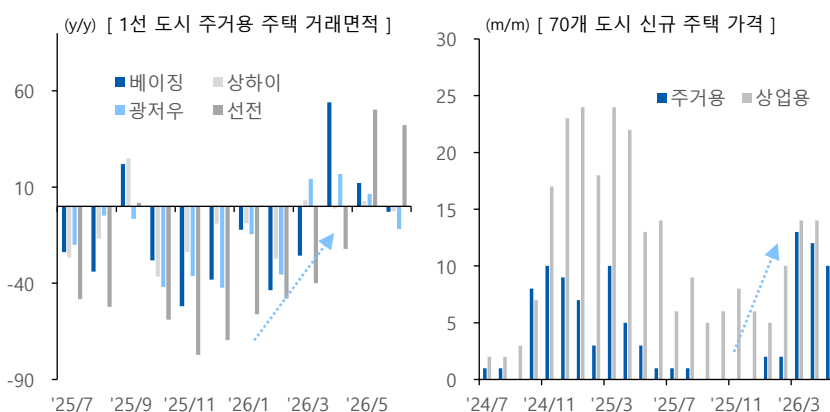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s

그동안 중국의 소비 회복을 저해했던 부동산 경기는 저점 신뢰도가 높아지는 중.

1선 도시의 주거용 주택 거래 면적은 2025년 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 70대 도시의 주거용 주택 가격도 회복세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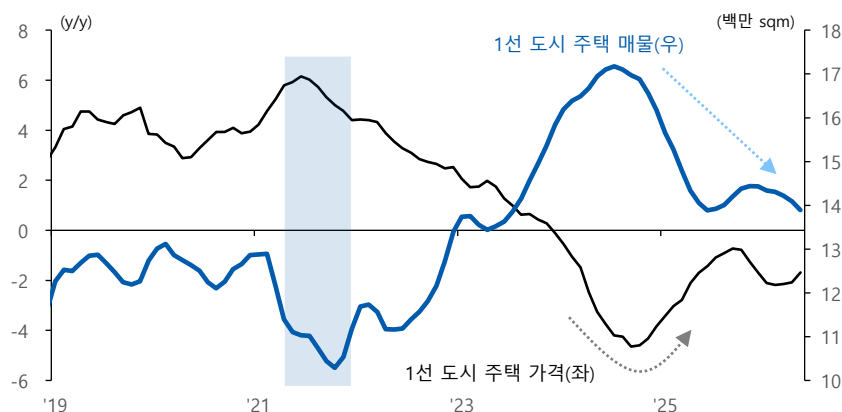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저점 신뢰도가 높아지는 중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 된 2022년 이후 급증했던 주택 매물 역시 점진적으로 소진 중.

[그림 4]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증했던 주택 매물 역시 점진적으로 소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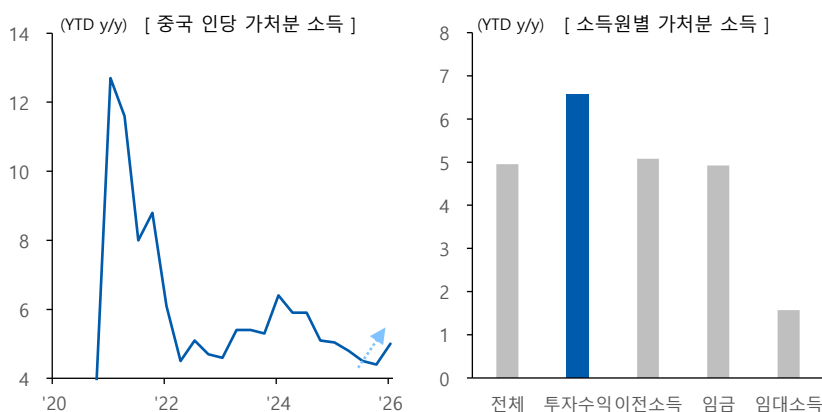
주: 주택 매물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합.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의 인당 가처분소득 증감률은 25Q4 +4.4%에서 26Q1 +5.0%로 증가.

소득원별로는 투자수익이 +6.6% 증가하며 견인.

신국 9조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책이 부의 효과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 재원으로 전환 중.

[그림 5] 증시 부양책은 부의 효과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 재원으로 전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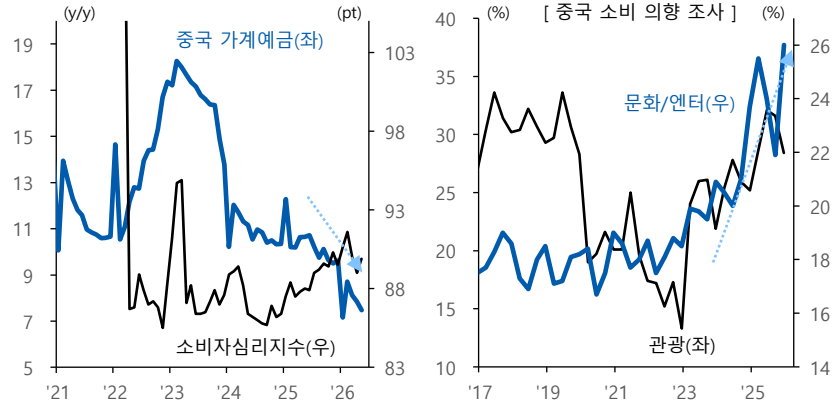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s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소비심리는 추세적인 회복세, 가계예금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 코로나 19 이후 비자발적으로 고착화됐던 저축 기조가 종료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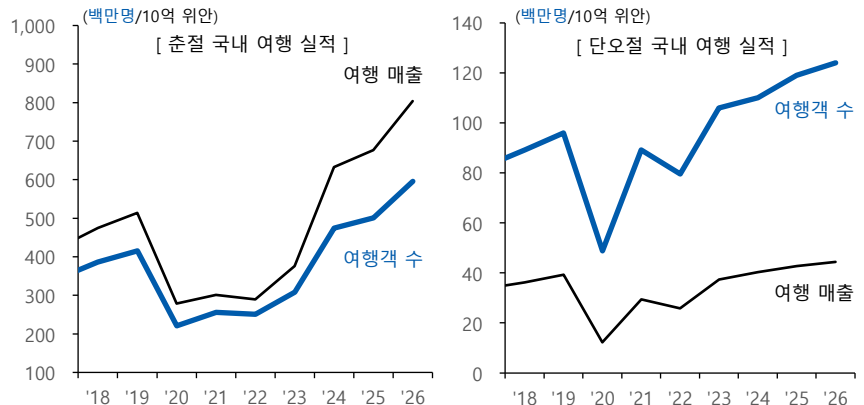
산업별로는 관광, 문화/엔터 영역에 대한 소비 지출 의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그림 6] 고착화됐던 저축 기조는 여행과 문화 소비 수요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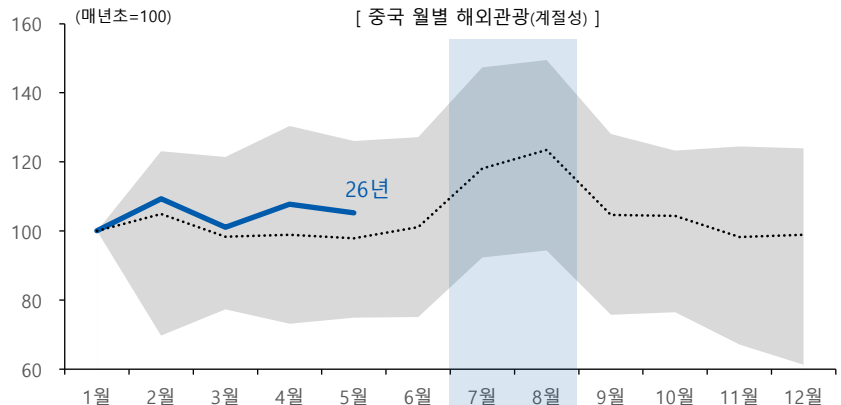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26년 연휴 기간 관광객 수와 관광 매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여름 방학(7월~8월) 기간은 전형적인 해외여행 성수기



주: 최근 5년 평균(2020~2023년 제외).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의 겨울 방학은 춘절과 연계된 귀성 휴양이 중심.

반면 여름 방학(7월~8월) 기간은 전형적인 해외여행 성수기.

Key Charts

2026년 여름 성수기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최선호 도시는 서울. 제주도 역시 상위권에 랭크.

기존 선호지였던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 수는 반일 감정이 지속되면서 여전한 감소세.

5월 방일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5년 이후 최저 수준. 2025년 12월부터는 방한 중국인 수가 방일 중국인 수를 역전.

중국의 해외여행 소비 트렌드는 명품 쇼핑에서 '로컬 문화 체험 및 미식'으로 변화 중.

그러나 최근의 상반된 환율 흐름(달러 및 원화 대비 위안화 강세)은 중국 관광객들의 상품 구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

중국의 면세점 구매 희망 품목은 Beauty products의 응답률이 62.1%으로 1순위.

[그림 9] 한국은 여전히 중국인들의 최선호 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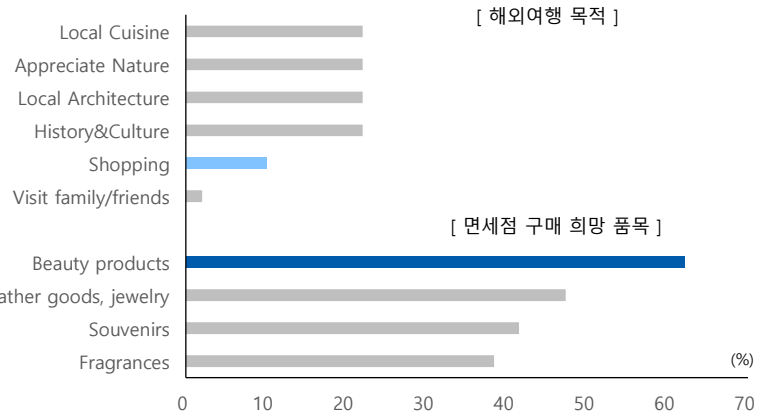
[하반기 해외관광 선호 도시]

1. 서울
2. 방콕
3. 싱가포르
4. 쿠알라룸푸르
5. 제주도
6. 발리
7. 치앙마이
8. 푸켓
9. 호치민
10.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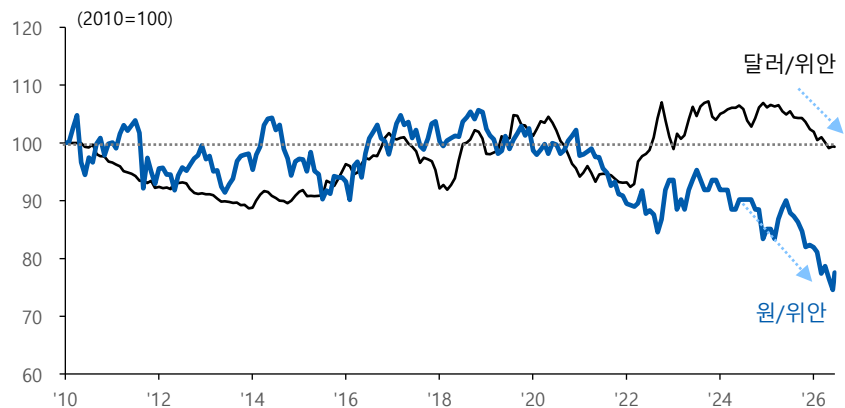
자료: China Trading Desk(7/10 일),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중국의 해외여행 소비 트렌드는 명품 쇼핑에서 '로컬 문화 체험 및 미식'으로 변화 중



자료: China Trading Desk(7/1 일),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최근의 상반된 환율 흐름은 중국 관광객들의 상품 구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민병규)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